

스포츠P&P  
스포츠P&P

**스포츠**

**PEOPLE & PLAYER**

언제나 청춘, 실버야구단

# 언제나 청춘, 실버야구단

서울 노원구 불암 실버 야구단

띠약별이 내리쬐는 6월의 어느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암종합스타디움의 야구장에는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고 연습에 매진 중인 중학교 선수들이 우렁찬 기합을 외치며 연습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동장 한쪽에는 푸른 유니폼을 갖춰 입은 한 무리의 어르신들이 보였다.



“젊은 친구들이 좋은 건 저렇게 패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평균나이 58세. 45세 이상의 야구를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만든 아마추어 야구팀인 불암실버야구단은 올해로 창단한 지 4년째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공식 연습시간을 가진다. 머리칼이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장비를 챙겨 들고 더그아웃에 들어서자마자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춘다. 올해 나이 84세 국내 아마추어 리그 최고령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불암실버야구단의 투수 장기원 씨를 향한 인사다. 언뜻 봐도 단단한 체격에 기운찬 목소리로 파이팅을 외치는 장기원 씨는 야구를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이 넘어간다고 한다.



“내가 평생 늘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팀에 노인이 들어온다고하면 만에 하나 다치면 큰일이니까 부담을 느낄 법도한데. 받아들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고 있지요.”

야구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선수 못지않게 많은 운동량을 소화해왔기 때문에 투구 연습에 들어가면 공 200개 정도는 거뜰하다는 베테랑 투수. 아마추어 리그에 참가하면 선발로 나가 3, 4이닝 정도를 책임질 정도로 실력 또한 빼어나다는 것이 단원들의 평가다. 벌써 3년째 배터리를 이루며 공을 받는 포수 박효녕 씨는 단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저도 어디 가면 노장소리 듣는데, 매일 운동을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20년 더 사시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해오신 것을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려고 약이다 뭐다. 잘 먹잖아요. 야구는 저희한테 자양강장제나 다름없어요. 60세 넘어 인생의 하향곡선을 긋는 과정에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거든요.”



올해 11월에는 한국-대만-일본 세 나라의 어르신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실버야구리그에도 함께 초청받아 우리나라 실버야구 동호인들을 대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노련함을 앞세운 뛰어난 경기력으로 2013년에는 노원구청장배 사회인 야구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저력도 보여주었다.

“우연히 구청에서 실버야구단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이거 한 번 해봐야겠다 하고 모인 게 시작이었어요. 아마추어끼리 모였지만 야구 1, 2년 한 사람은 여기서 활동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10년 넘게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야구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서로 우애가 좋고, 호형호제하며 지내다 보니 4년 동안 단원수도 26명으로 늘어났어요.” 창단 초부터 활동해온 팀의 살림꾼 김영철 총무의 얘기다.





정오를 넘기며 뜨겁게 달궈진 운동장과 구름 한 점 지나가지 않는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더해져 인상이 질 법도 하지만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연습을 준비하는 단원들의 모습은 시종일관 유쾌하고 웃음이 가득했다.

과연 이들이 야구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팀 내 유일 선수 출신으로 기술 고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형규 씨는 불암실버야구단의 자부심은 단원들의 ‘열정’에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운동했어요. 지금 여기에 와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들에게서 단 하나 못 따라 오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열정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려고 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오지,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즐기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니까 더 좋은 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말랑한 연식구가 아닌, 진짜 야구공을 던지고, 치고, 달리기 때문에 회원들은 시합 때마다 안전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종목에 비해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지만 그래서 더 스릴이 넘치고 나이 든 사람이 하기에 딱 알맞은 종목이 야구라는 자랑까지 빼놓지 않는다. 야구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에는 실버야구단의 숫자만 해도 500팀 이상,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20팀 정도로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한다.

황혼이라고 불리는 나이에 야구라는 하나의 목표를 통해 나이 차를 잊고 우정을 쌓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원하는 밝고 건강한 노년의 모습이 그려져 흐뭇했다.

키모니 공식질문!

동호인들에게 묻는다.

# 나에게 □□ 란?

- 야구 편 -

나에게 야구란, 행복이다.

나는 항상 야구를 하면 행복합니다. 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 불암실버야구단 장기원 씨 -

나에게 야구란, 모른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더 어려워지는 게 야구 같습니다.

- 불암실버야구단 이춘봉 씨 -

나에게 야구란, 인생 사는데 잠시 들렀다 가는 길이다.

한때는 내 인생의 전부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계속하는 걸 보면 인생에서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불암실버야구단 이형규 씨 -



우리제품 어때요?

**kimony**

# 야구그립 솔직 사용기!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어렵게 시간 내주신 동호인들을 위해 키모니 스포츠 양말과 야구 방망이에 감는 키모니 배트 그립 몇 가지를 챙겨서 선물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의 반응,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죠^^



▲ 사용한 지 몇 번 안 됐는데도 꼬질꼬질~ 낡아 보이는 야구 배트들



▲ 키모니 배트그립과의 첫 만남, 보자마자 배트에 감아보시네요^^



▲ 형형색색 배트 디자인과 취향에 따라 예쁘게 감겨있는 키모니 배트그립

“짧게 잡는 사람이든 길게 잡는 사람이든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써보니 손에 착 붙는 느낌이 확실히 좋네요.”

“컬러가 다양해서 좋습니다. 대개 회색 그립을 많이 쓰는데 컬러풀해서 기분 전환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립 색깔 예쁘다고 공을 잘 치는 건 아니지만요. 하하.”

“써보니까 촉감이 괜찮아요. 시합 때 쳐보고 나서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미 저희 키모니 제품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가지고 온 배트를 모두 꺼내 그립 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생생한 고객의 반응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앞으로 저희 키모니도 사회인 야구는 물론 실버야구단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imony**